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중국, 종합1위로 강대국 표방

송고시간 | 2008-08-09 11:22

송광호 기자
기자 페이지

<올림픽>베이징 올림픽 개막

(베이징=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08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인 궈자티위창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가 각국 국기 앞을 지나 정화대로 향하고 있다.

jeong@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2008베이징올림픽 주최국인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1위를 노리고 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뒤늦게 데뷔한 중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종합 2위로 올라섰으며 베이징에서는 스포츠 최강국 미국마저 제치겠다는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중국이 왜 종합 메달 순위 1위에 그처럼 집착하는 것일까. 인방에서 미국을 꺾어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이지만 그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바로 현대 올림픽에서 종합메달순위는 국력, 이른바 '글로벌 파워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9일 '올림픽 종합순위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보여준다는 인터넷판 제하의 기사에서 이처럼 분석했다.

지난 100년의 올림픽 역사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은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56개를 획득,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3개의 금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1010원
모토당첨률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coway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올림픽>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전 돌입!

(베이징=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8일 저녁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국지타위창'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utzza@yna.co.kr

하지만 1920년대 말 30년대 초 대공황 극복 이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질서를 움켜쥔 미국은 올림픽 종합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독주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냉전시대 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면서 미.소간 경쟁이 올림픽에서도 불거진 것.

양국은 앞서거나 뒤쳐가니를 반복하면서 수 십년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1991년 냉전종식 후에는 미국의 독주체제가 굳어졌다. 미국은 자국에서 열린 애틀랜타올림픽뿐 아니라 시드니 아테네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 독주 속에서도 중국의 상승세는 단연 돋보였다. 미국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래의 라이벌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시드니에서는 3위, 4년 후 아테네에서는 2위를 차지하면서 경제력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매서운 상승세를 보인 것.

이에 반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 등을 감행하면서 들끓고 있는 미국에 비우호적인 세계 여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군사력 등에 비춰 예전만 못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

인디펜던트는 어쩌면 이번 올림픽이 미국의 세기에서 중국의 세기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사실을 예의주시해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USA투데이는 8일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51개의 금메달을 따 43개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buff27@yna.co.kr



관련기사

<올림픽> 한국, 만리장성 넘어야 톱10 보인다

<올림픽> 미국 "중국,러시아와 3파전 예상"

-올림픽-아! 베이징.. '100년의 꿈' 화려한 개막(종합2보)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09 11:22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일,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탄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시간 제한없다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소화"

안철수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만...임기 끝까지 최선"

'엄중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尹측 "정호영 아빠 찬스' 논란, 국회 검증의 시간 지켜볼 생각"

댓글 많은 뉴스

1
💬 16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2
💬 67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3
💬 56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열?

4
💬 41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사회 발전 예상"

5
💬 29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찰이 혐의 밝혀냈나?

뭐하고 놀까? #홍콩 →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P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개인사/제휴문의